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1호 【루게 제 24754호】 주제 103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굳혀오시며 료라대의건설자양사업소 로동자 김충일은 대한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기재를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었다.

만수교교양사업소 로동자 최은희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는데 이바지할 열의밑에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지난 기간 천출원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조선어린이후원협회 부원 강희, 체신성 기사 홍수정은 만수대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해 지성을 바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병원의 교원, 의료인들은 자강도내 로동계급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치료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대학과 병원의 수시명의 교원, 의사 등으로 무어 진 치료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전투현장에 나가

산자들에게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으며 그들의 가족들과 주민들도 성심성의껏 치료해주었다.

현장의료인근들의 림상기술수준을 한계만 높이기 위하여 수시차의 과학기술강의와 수백회의 전문과별기술 전수를 진행하였다.

수산과학분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사 최진익은 수십년간 고심어린 탐구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국보적 가치를 있는 도서들인 《조선바다물고기》(1, 2권), 《조선바다 동물종목색도감》을 집필함으로써 나라의 교육사업과 수산발달에 이바지하였다.

평안남도범의강원로 동로자 리명희는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남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돌격대원들을 여러차례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을 따르는 일관된 심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울란바타르

몽골민주당 중앙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몽골민주당창건 14돐에 즈음하여 귀 당과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몽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3(2014)년 12월 5일 평양

대교조진군길에 세폭의 붉은기 세차게 휘날린다

승리의 신념과 높은 열정을 앞세워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그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 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단위의 전투력을 높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일으켜나가는 위대한 추동력이다.》

회창간기조식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얼마전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정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당 조직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모든 종업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도리의 강자로 여세게 키워왔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수령경사용위정신이 높이 발휘되었다.

지난해 8월 공장주변의 어느 한 건물에 화재가 크게 번져질수 있는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종업원들은 서슴없이 그 불길속으로 뛰어올랐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여 백두산철새위인들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모든 종업원들이 참된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기의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그러하여 공장은 2중26호 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받았으며 모범준법단위의 영예도 지니고 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기술혁명수행에 더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무공화 실현을 위해 제폭의 힘을 높이고 원가를 줄이면서 생산을 1.5배로 장성시켰다.

또한 자체의 힘으로 50여 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생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기초식물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해결하여 군인의 주민들에게 맛좋은 간장과 된장을 대량 생산적으로 공급하게 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문화혁명수행에서도 전진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높이 세웠다.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실시하여 60여명의 기술인재들도 키워냈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훨씬 높였다.

종업원들속에서 대중체육과 중중문화에 활동도 활발히 벌어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공장에 언제나 혁명적량만과 열정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반조직의 힘으로 가솔과 장비파괴를 막기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메히고, 도이원란드, 나이제리아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 콰달루, 영화감상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총대》, 《문수물놀이장》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으며 혁명의 후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이와 함께 작업반조직의 힘으로 가솔과 장비파괴를 막기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메히고, 도이원란드, 나이제리아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시회, 콰달루, 영화감상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총대》, 《문수물놀이장》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청년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으며 혁명의 후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큰 20만t의 석탄을 더 보내주었다

화력탄보장을 맡은 각지 탄광들에서

총합된 자원으로 의하면 화력탄보장을 맡은 각지 탄광들에서 11월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여 더 20만t의 석탄을 화력탄보장에 더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속에는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1의 석탄이러더 더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주기 위해 수천 척지하마당에서 당중앙에서 많은 량을 담당하고있는 석탄부문의 각지 탄광들이 힘과 열정을 다하여 선 단위로 자랑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은 적극 돌리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석탄공업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기들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1월 화력탄보장정착기에서 순천지구정년관련합기업소가 전국의 앞장에 섰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2.8직동성

화력탄보장을 맡은 북부지구 탄광들에서 11월에 생산적량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석성탄광, 풍인탄광, 학포탄광, 중봉탄광, 고진원탄광, 룡북탄광의 11월 화력탄보장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할바없이 뛰어올랐다.

조진은 불타고내세는 화력발전소들은 눈치만 이곳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오늘의 화력탄보장정착기에서 풀 당중앙에서 용기있는 투쟁한 판점을 가지고 지어막자마다에서 공격적인 열정을 세차게 일으켰다.

독장탄광기공장, 덕천탄광기공장, 순천탄광기공장, 은산탄광설비부속공장, 송남탄광기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생산보장하는 심정을 안고 석탄운수부문으로 새겨 줄어넘치는 탄광들에게 많은 량의 탄자를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석탄운수부문 화력탄보장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은 11월의 전투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12월 생산돌격전을 본떠있게 벌려 울려퍼지는 승리의 열기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본사기자 강명천

년 계획 넘쳐 수행

원산 통풍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계획에 떨쳐나선 원산통풍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 통풍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제 취직취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통풍기들을 생산보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해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내세우며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현장을 맡고 내려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철저히 일

을 늘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품종합적업반에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반영하여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필요한 각종 통풍기들을 생산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가공종합적업반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제품가공시간을 줄이고 조립속도와 질을 높여나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통풍기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 열의에 넘쳐 기세있게 전진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통이 크게 작전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

함경남도송배전부에서

우고 전투에 진입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와 전력공업정책의 방주밑에 도송배전부일군들은 시, 군송배전소의 유능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시켜 개건 및 현대화계획을 편성하고 들끓는 전투장면을 펼치며 전력보장을 위한 선진적 배전기술을 도입하였다.

도송배전부 시, 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 늘이고 23개의 철탑을 교체하였으며 1만 2천여개의 현수줄을 새것으로 바꾸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하였다.

여러 번전소현대화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계와 시공, 설비보장을 앞세우면서 시공을 짜

고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전소들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다.

건물들은 물론 내부의 배전반, 외부의 변압기, 차단기, 단로기 등 모든것이 일신되었다.

기술개선을 통해 크게 벌린 결과 도송배전부에서는 철탑들과 변전소들에서 집지저항을 현저히 낮추고 절연수준을 종전보다 높여 전력의

도송배전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전기 절약에 기여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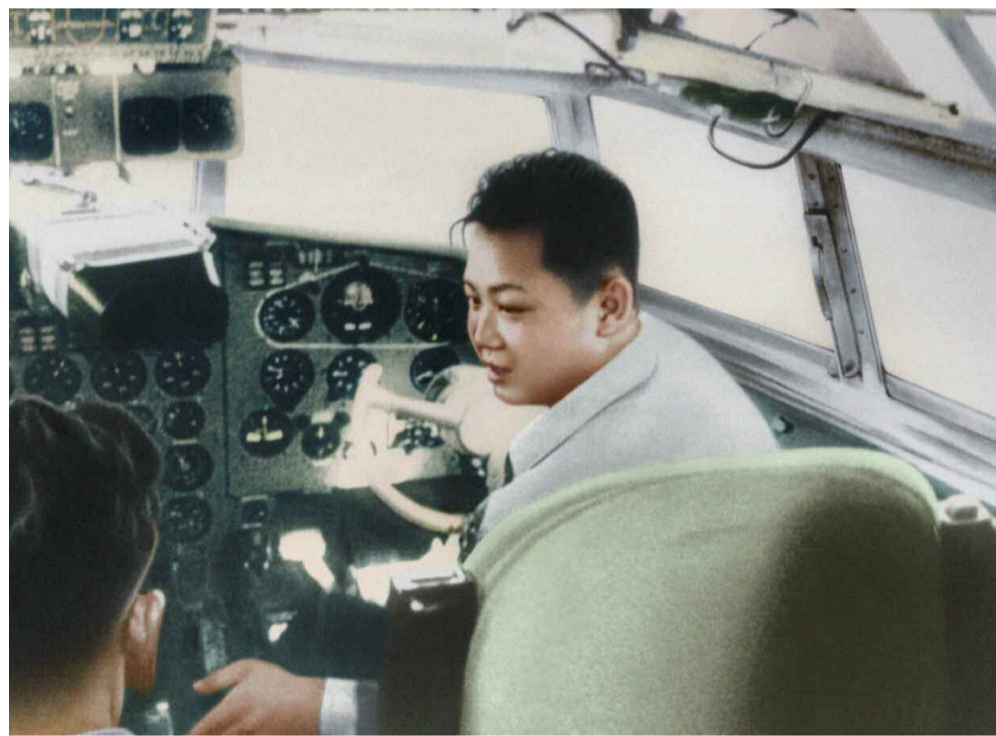


함경남도송배전부 단전개소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신 희세의 선군령장



↑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1월
→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 열병식에서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1(1992)년 4월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7월

시험비행을 몸소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56(1967)년 9월

땅크병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72(1983)년 4월



최전연에 위치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7(1998)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시어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4(2005)년 5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인민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5(2006)년 4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형단위의 모범을 본받자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에서(1)

정론

황

금

해

우리나라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가슴이 넓은 바다를 인민들에게 덕을 주는 보배로운 바다로 되게 하는것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들중의 하나이다.

내 나라의 바다에 뜻깊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난 11월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높이 울리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세상에 바다는 없어도 황금해는 없다. 황금해라는 말의 의미는 아직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다.

황금해란 어떤것인가. 우리는 지금 쏟아지는 물고기포목을 배경으로 만시를 잊고 환히 웃으며 서거하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빛같은 영상이 가슴에 미쳐오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포구에 서있다.

— 처절해! 파도가 쉽없이 밀려와 기술을 친다. 전하고 전해도 끝이 없을 이야기 하도 많아 조국의 바다도 경계에 겨워 설레이는가, 황금해의 력사가 닦을 올린 사연같은 포구에서 우리는 내 나라 바다의 새 이름—황금해라는 부름이 안고있는 천만민의 의미를 심장에 새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대에서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인민군대 수산부대의 모범을 따라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과학적방법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려 포구마다 대에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며 바다가양식도 대대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물고기바다이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에 펼쳐진 풍경은 달리는 말할수 없는 물고기사태이다.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온 고기배들이 밤낮으로 물고기포목을 쏟아내는 하북장은 보기만 해도 장쾌한 물고기바다이다. 포란상자마냥 차곡차곡 쌓아올린 맹물물고기들이 가득한 저장실은 갈매는 물고기산다. 포구로 들어서서는 고기배들의 선창에도 물고기가 가득하다.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가 높이 울리게 물고기 가득》이라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도 여기서는 저절로 흘러나오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

혁명일화

원수님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위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포구에 《바다 만풍가》의 노래 소리 흥겹게 울려 퍼지고있다.

늘실늘실 울렁이는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가는 기쁨과 선창이 넘치게 잠은 물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가는 희열을 신바람나게 펼쳐주는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가려면 얼마간 동해의 포구에 펼쳐졌던 감동깊은 화폭이 눈앞에 어려온다.

지난 11월 18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8호수산사업소의 하북장을 찾으시였을 때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진풍령포를 타고 물보라를 훑달리며 위입없이 쏟아져버리는 물고기포목,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높아만지는 물고기산... 볼수록 놀랍고 호모하여 일꾼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기쁘시어, 너무도 기쁘시어 그이께서는

우리네 바다는 얼마나 좋은가. 동해어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너무 기쁘시어 《따나갈 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라고 흥겨운 노래가락을 넘기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진행된 경제부문 책임 일군회의에서도 고기배를 무릎에 대하여 교시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위해 바치신 위대한 한평생의 마지막목걸이로 물고기공급에 관한 문건에 수표하신 원수님께서도 오늘이 이 호숫한 풍경을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세상에 바다는 많다. 절경으로 이름난 바다도 있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자랑하는 바다도 있다.

조선의 황금해는 진정한 어떤것인가.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았었던 그날 하북장에 장쾌하게 펼쳐진 물고기바다를 보고 또 보시며 한해동안 쌓인 피로가 다 풀린다고, 인민군대의 수산부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요즘은 잡도 오지 않는다고 하시던 원수님의 그 말씀이 귀전에 울려온다.

너무 기쁘시어, 너무도 만족하시어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라고 《바다 만풍가》를 흥겹게 부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희열의 세계가 우리 가슴에도 뜨겁게 밀려쳐온다. 황금해!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 꿰고있는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바다와 같은 사랑의 세계가 터져올린 부름이다.

저 넓은 바다를 통째로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한 거대한 양어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또 하나의 제부로 전변시키고싶은 우리 원수님의 절절한 마음속진정이 안아올린 이 부름이다.

사람들은 값지고 귀중한것을 황금에 비겨 말해왔다.

우리 원수님께서 있어서 이 세상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은 병사들과 인민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다.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고싶은 조선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이 펼쳐 울리는 사랑의 바다, 헌신의 바다가 조선의 황금해이다.

목지가 변하여 바다로 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우리는 력사의 기적을 말해왔다.

단 몇해사이내 내 나라 바다에 놀라운 화폭들이 수놓아지고있다. 원수님의 막대한 재능과 고집압살의 광풍이 멀리 일렁이도록 하였던 내 나라의 바다항기가 우리 생활의 한복판으로 뜨겁게 울려오고있다.

우리는 이곳 수산사업소에 세워진 류

다른 계사관앞에서 오래동안 발걸음을 댄수 없었다.

《조선에서 보내온 병사들의 모습》이라는 글밭아래 물고기공급을 맞이한 초소병사들의 생활이 그들이 직접 그려보낸 소묘들마다에 펼쳐져있었다.

바다엔 산중초소에 넘치는 물고기비린내, 물고기사태가 안아온 병사들의 웃음사태, 매일, 매끼 물고기먹는 자랑을 고향의 어머니에게 써보내는 신입병사의 모습... 어찌 전연고지들의 화폭만던가.

추운 이 겨울 귀여운 우리 원아들의 웃음소리 넘치는 육아원, 애육원의 식탁들도 맛있는 물고기가 매끼 온다.

하늘아래 첫동네 삼지연담에도 새겨진 이야기이다. 고개 넘어, 산을 넘어 달려온 원수님 보내주신 사랑의 물고기들을 가득 담은 자동차들을 마중하며 울고웃던 그날의 격정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가는 산골마을사람들.

세월이 가져다준 변화가 아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둘어에도 꽃을 피우려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이 낳은 기적이다. 피눈물의 12월의 물고기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가장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바다와 더불어 태어났다.

세월의 파도도 지울수 없는 사랑의 자욱 풀이안고 내 나라의 바다는 낮이나 밤이나 설레인다.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마음껏 먹이고싶은 소원이 너무도 간절하시어 적들의 전진도발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때에조차 전투합선이 아니라 고기배들을 만들어 띄워 주시고 찬비내리는 포구를 찾으시어 세 고기배에도 올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모습을 사랑과 정에 불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의 바다는 뜨겁게 비껴나왔다.

《단풍》!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몸소 달아주시고 기쁨의 그 이름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원의 대명사로 되어 조국의 바다에 사시절 풍요한 수확의 계절을 펼친다.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파랑저들과 원아들의 사진을 보시며 정말 이런 떼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뼉의 물결같은 행복에 도취되어보고 힘들이지 웃으며 투쟁속에서 사는것 같다고 쓰신 경애하는 원수님 친필서한의 글밭도 또 보며 온 나라에 일어났던 격정의 파도 다 합쳐안고 내 나라의 바다는 세계를 설레인다.

조선인민군 수산부대원정사회의를 몸소 소집해주시고 당기발이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정사를 배경으로 우리 원수님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이룩한 일꾼들과 선장,

어로공들과 함께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은 우리 당의 리상이 무엇이고 년대와 세기를 줄기차게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의 근본리념이 무엇인가를 력사와 시대앞에 다시금 힘있게 선언한 불멸의 화폭이었다.

하기에 자기들을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라고 불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은 심장으로 아뢰이지 않았던가.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바다 만풍가》는 원수님 안겨주신 황금해의 영원한 주제가입입니다! 물고기잡이 수천 t!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안아온 생산자도 귀중하다. 그보다 더 귀중한것은 이들이 보여준 황금해창조정신이다. 결코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단위의 성과로만 여길수 없었다.

황금해창조정신, 여기에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의 전기가 있다.

우리 당정책은 백승의 진리이며 만민의 뿌리이다.

주체혁명적 첫 기술에 력사적부리를 내리던 《E. C.》의 그 시절부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직해온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여 조국과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었으며 강성번영의 력사를 열어놓았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우리 당의 위대한 로선과 정책들을 한몸 바쳐 관철할 때 이 땅위에 얼마나 눈부시고 아름다운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게 될것인가를 가슴벅차게 새겨주는 이 부름이다. 문제는 당정책결사관철이다.

올해의 어획조정은 사실 불리하였다. 바다들의 온도변화가 심하여 좋은 어장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물고기들이 바다 깊은 곳에 있어 잡기가 힘들었다.

사회적 일부 수산단위들이 날씨타발, 조건타발, 연유타발을 하고있을 때 이곳 수산사업소에서는 당정책결사관철의 폭풍이 불어왔다.

첫 전투는 그물뜨기전투였다. 사업소의 지배인으로부터 마지막어로공, 그 가족들까지 펼쳐나 손에 피가 지도로 뜨끈한 그물을 다 펼치며 또 하나의 바다를 이룩하였다. 이 한몸 그물이 되어서라도! 저 바다를 들어내시라! 이것이 이들의 심장속에 격랑친 결사의 각오였다.

오늘 우리는 최첨단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진보와 발전이 분기 아니라 초를 단위로 이루어지고있

는 속에서도 더욱더 확고해지고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제일 크고 위대한 힘은 인간의 정신의 힘, 사상정신력의 위력이라는것이다.

당정책결사관철의 오직 한길! 이것이 이들이 이어가는 신념과 의지의 불변항로이다.

황금해는 자연의 바다가 아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자기들의 심장에 함께 새겨안은 당정책의 선봉자, 관철자들이 펼쳐가는 신념과 의리의 바다, 실천과 투쟁의 활무대가 바로 조선의 황금해이다.

이들에게도 많은것이 부족하였다. 고난과 시련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당이 준 명령지시를 끝까지 관철할 그 날만을 향해 신념의 노, 투쟁의 노를 역세게 지어왔다.

연유가 부족하면 기술혁신을 하여 이전보다 20%의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는 물고구를 열었고 물고기부림시간을 줄이기 위해 하북장에 진풍령포를 설치하기 위한 전투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였다.

일부 수산사업소들에서 물고기잡이철을 쳐다보고 물고기떼가 나타나기를 목지않아 기다릴 때에도 이들은 억척같이 바다를 타고갔다 어로전투를 벌려왔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모든 배들이 늘 바다에 떠있으니 일단 물고기떼가 나타나면 즉시에 움직여잡을 수 있었고 전투를 벌릴수 있었으니 좋았고 낚지, 건어, 고등어, 청어, 삼치 등 철따라 나는 맛있는 물고기들을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줄수 있어 더욱 좋았다.

말그대로 투쟁의 바다, 열정의 바다였다. 낮에는 뜨물에서 의한 물고기잡이전투를 하고 밤에는 건어어업을 하는 2~3중어업이 묘연의 불길처럼 타버려 우리의 바다는 낮에도 밤에도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물성이 울리지 않는 바다였지만 당중앙 결사옹위의 전역이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 이들은 그것을 우리를 고립압살시키려고 악착스레 날뛰는 원수들의 제재와 봉쇄의 그물을 갈라라 찢어버리고 부강조국의 진군로를 열어가는 우렁찬 승리의 포성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이 준 전투명령!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생산자수가 아니라 우리 나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하던 패배주의자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우리 당 수산정책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증표라고 생각하였다.

물고기 한마리는 포란 한발! 참으로 가볍게 의욕수 없다.

물고기 한마리는 포란 한발! 참으로 가볍게 의욕수 없다.

사회주의포구에 울리는 만세소리는 조국 수호의 전초선에 울리는 승리의 포성 못지않게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위력한 불빛성이다.

인민들의 심장속에 울리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달려며 그 무는 《인연》에 대해서까지 감히 떠벌이는 원수들의 상통에 퍼붓는 통쾌한 불벼락이다.

온 세상이 보란듯이 우리는 인민의 만복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것이다. 《황금해》!

우리 원수님 로동당시대의 황금해의 력사를 개척하자고 하시며 새로 만드는 고기배들에 몸소 달아주시고 이 이름 천만의 심장에 세찬 격정의 파도 일으킨다.

우리의 목표는 원대하고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다시 확인하시었다.

수령님의 교시와 장군님의 말씀을 따르며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당정책의 선봉자, 당정책결사관철의 선봉자, 이것이 오늘 조국과 혁명이 요구하는 진제배기혁명가이다.

당정책은 외우는것이 아니라 관철하는것임을 실천으로 증명하야 이곳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처럼 모든 초소, 모든 일터에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최상의 높이에서 꽃피우자.

만선기를 날리기 전에는 포구에 닦을 내릴수 없다!

이곳 수산사업소 일꾼들과 어로공들의 심장속에 고동친 이 신념과 의지 온 나라 천만민들의 심장에 세차게 맥박칠 때 내 나라의 모든 산이 황금산이 되고 이 땅의 모든 벌이 황금벌이 되며 우리의 바다가 황금해로 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는 일꾼들이여.

일꾼들이여. 어로공들을 단순한 로동력으로 보지 않고 당정책의 선봉자, 당정책결사관철의 선봉사들로 믿고 내세워주며 친밀 바다승어장을 보기 전에 어로공들의 마음부터 들여다본 이곳 사업소의 일꾼들처럼 사무실과 대담하게 결별하고 대중속에 같이 들어가 대중과 승결을 같이하고 고락을 나누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투에서 기적을 창조하는 능숙하고 용감무쌍한 혁명의 지휘선원이 되라.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라고 노래만 부르지 말고 땅과 열정을 바쳐 만방에 빛내이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참다운 애국가 되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가 눈부시게 펼쳐진 그날을 앞당기며 천만민이여, 솟는 힘노도도 내밀어 더욱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방 성 화

《바다 만풍가》

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충수화기를 드신채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났던것이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의 11월 물고기 배를 빨리 잡아 인민들에게 보내주자고 하시며 수도사민 한사관담 차재지는 수량에 이르기까지 헤아려주시고 심장의 고통이 멎기 전날 저녁에도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 은정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꽃피워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던 지도로 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를 되새길수록 일꾼들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지난해 봄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어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고기배들의 명칭을 《단풍》으로 달아주시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에게 보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30여년만에 흐뭇한 물고기대풍을 마련하

였다는 소식을 받으신 그달음으로 또다시 그들을 찾으시어 이곳 수산사업소에 오니 웃음이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는 노래가사가 절로 떠오른다고 그러도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크나큰 희열의 세계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속에 외우시던 가사가 그대로 《바다 만풍가》의 첫 소절이 되고 흥겨운 민요선율을 낳았던것이다.

이 기쁨이 뒤 더덕나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항기 더해가세 크나큰 감동속에 노래를 부르는 일꾼들의 가슴속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업적을 물고기대풍으로 세세년년 빛내어갈 불타는 맹세가 용솟음쳤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신 《바다 만풍가》, 그것은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항기를 더해주며 만선의 배고동소리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로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조국의 바다에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 간 다.

본사기자 리 명 남 씌움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결사관철해온 자랑찬 위훈의 한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발전전설장에서 비상한 전개력, 진공적인 일본새로 일관된 전투작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담하게,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올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는 발전소 건설력사에 보기 드문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10개의 발전소건설이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 새로운 조성 속도, 제2의 최정신장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전반기 발전소건설장소에서 연제와 발전기기를 비롯한 기본구조물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송전선공사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며 총공사와제수행에서 참으로 놀라운 실적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책임진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기동적인 공사지휘, 용이 큰 일본새를 때려놓고 생각할수 없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방대한 올해 건설과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돌격대원들의 정신력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공사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간것이다.

특히 정치사업을 화신식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각종 계기와 시점에 맞게 옹운 방법론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력을 나타내도록 한것이 좋았다.

올해의 뜻깊은 광명성절과 태양절을 맞으며 각종 예술소품 공연, 각 단위 돌격대원들을 망라하는 대합창공연을 특색있게 조직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의 정이 뜨겁게 넘쳐흐르도록 하였다.

보통보전투승리기념일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6월 19일, 공화국창건기념일, 당창건기념일, 선군절을 비롯한 뜻깊은 기념일들마다에 우등보급, 시랑호급, 회고모임과 다양한 형식의 예술소품 공연, 무도회를 진행하여 온 한해 동안 모든 공사장들이 높은 정치사상적분위기 속에서 들끓게 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뜻깊은 기념일들은 물론 건설전투과정의 중요한 계기점마다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전개하였다.

현장지휘부 정치부에서는 월전투과제를 끝낸 날 밤 12시 모든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기 단위의 계획수행

정형을 보고드리는 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착상하고 해당 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고 영광의 그 시각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건설투쟁의 순간순간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나갔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완공할수 있도록 공사작전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것이다.

올해에 이들이 내세운 공사목표는 발전소건설총공사의량 85%를 수행하는것이다.

이에 맞게 현장지휘부에서는 월별, 분기별공사과제를 더 높이고 내세우고 제때에 무조건 완수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풀어나갔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9월에 이어 10월과 11월을 발전소건설의 결정적구실을 여는 시기로 정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언제든지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 장비, 물자를 총동원하여 달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책임진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기동적인 공사지휘, 용이 큰 일본새를 때려놓고 생각할수 없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완공할수 있도록 공사작전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것이다.

올해에 이들이 내세운 공사목표는 발전소건설총공사의량 85%를 수행하는것이다.

이에 맞게 현장지휘부에서는 월별, 분기별공사과제를 더 높이고 내세우고 제때에 무조건 완수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풀어나갔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9월에 이어 10월과 11월을 발전소건설의 결정적구실을 여는 시기로 정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언제든지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 장비, 물자를 총동원하여 달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전투중의 하나가 7차례의 장거리집중수송전이라고 할수 있다.

건설장적인 집중수송전이 처음 시작된것은 지난 3월초 통령지구에서 생산한 화물 제작용용나무운반전투부대를 돌리다가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중점과는 달리 모범적인 단위뿐만아니라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그 과정에 각 리더의 일선에서 서로의 공사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며 널리 일반화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뒤떨어진 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다른 공사장을 차례차례 밟아보면서 자기 단위와 실물대비해보며 나타난 우월함을 교훈을 찾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이곳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영역은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대주의 정진력발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나가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창발적인 일본새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대의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용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전투중의 하나가 7차례의 장거리집중수송전이라고 할수 있다.

건설장적인 집중수송전이 처음 시작된것은 지난 3월초 통령지구에서 생산한 화물 제작용용나무운반전투부대를 돌리다가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중점과는 달리 모범적인 단위뿐만아니라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그 과정에 각 리더의 일선에서 서로의 공사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며 널리 일반화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뒤떨어진 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다른 공사장을 차례차례 밟아보면서 자기 단위와 실물대비해보며 나타난 우월함을 교훈을 찾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이곳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영역은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대주의 정진력발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나가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창발적인 일본새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대의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용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전투중의 하나가 7차례의 장거리집중수송전이라고 할수 있다.

건설장적인 집중수송전이 처음 시작된것은 지난 3월초 통령지구에서 생산한 화물 제작용용나무운반전투부대를 돌리다가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중점과는 달리 모범적인 단위뿐만아니라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그 과정에 각 리더의 일선에서 서로의 공사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며 널리 일반화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뒤떨어진 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다른 공사장을 차례차례 밟아보면서 자기 단위와 실물대비해보며 나타난 우월함을 교훈을 찾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이곳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영역은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대주의 정진력발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나가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창발적인 일본새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대의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용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변혁기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전투중의 하나가 7차례의 장거리집중수송전이라고 할수 있다.

건설장적인 집중수송전이 처음 시작된것은 지난 3월초 통령지구에서 생산한 화물 제작용용나무운반전투부대를 돌리다가 벌어졌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중점과는 달리 모범적인 단위뿐만아니라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그 과정에 각 리더의 일선에서 서로의 공사경험을 허심하게 배우며 널리 일반화할수 있게 하였다.

특히 뒤떨어진 단위의 일군들이 직접 다른 공사장을 차례차례 밟아보면서 자기 단위와 실물대비해보며 나타난 우월함을 교훈을 찾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이곳 현장지휘부 일군들의 사업영역은 사상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비상한 각오와 투지에 넘쳐 대주의 정진력발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신속하게 세워나가며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창발적인 일본새를 높이 발휘해나갈 때 대의의 사상관철, 당정책옹위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용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 평양시려 단에서 -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발전기실들

청천강전역의 곳곳에 발전기실들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전반적인 공사수행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평양시려 단에서는 건물축조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칠수 있는 자체준비선형, 친정기중기보와 블로크생산에 큰 힘을 넣음으로써 11월현재 발전기실건설공사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건물미장까지 말끔히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주유명, 리중동투쟁을 비롯한 평안남도려 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지난 8월 중순 발전기실하부구조물공사를 끝낸데 기초하여 편이 기동공크리트치기와 벽체축조공사를 완강히 내밀어 발전기실건물공사과제와 연제다리보설치공사까지 성파적으로 완수하였다.

최전5호발전소건설을 맡은 황해남도려 단에서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줄기찬 투쟁을 벌여 연제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는 동시에 발전기실의 하부구조물공사과제를 완수하고 지상 건물건설도 마감단계에 다그치

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수력설비조립사업소에서는 대동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특색있는 기술공법들을 창안하여 발전기실조립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자강도려 단과 금야강수력발전 건설사업소, 태천수력발전건설 사업소, 철도건설부대를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발전기실공사물을 통해 크게 내밀어 건설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식의 창조본태가 제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기동공사과제가 완료된 송전선건설

올해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송전선건설에서도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년초에 수백기에 달하는 송전탑설우기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5월에는 종합적인 옥외배전소건설과 전구간의 1회선늘이기과제가 빛나게 완수되었으며 9월에는 2회선늘이기까지 모두 끝나 송전선건설에서 기본을 이루는 공사대상이 완공되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사를 맡은 김룡학, 윤정평동무들 비롯한 전력공업성려 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정초부터 설미전, 립제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자강도려 단의 전투원들은 옥외배전소건설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주요구간의 전선늘이기공사를 도맡아안고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산업을 오르내리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평안북도, 평양시, 함경남도, 함경북도려 단에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서 맡은 구간의 전선늘이기과제를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었다.

송전선건설사업소대의 전투원들이 1회선늘이기는 물론 2회선늘이기공사에서도 어려운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자강도려 단의 전투원들은 옥외배전소건설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주요구간의 전선늘이기공사를 도맡아안고 하루에도 여러차례나 산업을 오르내리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평안북도, 평양시, 함경남도, 함경북도려 단에 돌격대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서 맡은 구간의 전선늘이기과제를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치었다.

단상 하나가 된 두명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작전에서 창조본태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을 천만민심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물과의 싸움의 연속이다.

이 어려운 공사의 첫 공적인 가름막에서 전격의 돌파구를 남김없이 열어제길 황해남도려 단

전력공사의 열매

동력양력발전소의 전투력이 얼마나 비상한가를 보여주는 일과가 있다.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때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로 전해진 즉시 새로 생겨난 일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석달전 땅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일군들의 얼굴은 누구라하여 긴장되어있었다.

적게 잡어도 45일은 걸려야 하는 2호보일러대보수를 한달 동안에 진행, 그와 동시에 전력생산은 최고수준에서 보장! 중점의 전투방식으로 업무

다음교대는 나의 교대!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화선 일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이것은 열성적인 직장, 타민직장, 윤란직장 등 중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동력기지의 곳곳에서 불수 있는 갈바이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목소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집단주의의 양을 계속 강화하여 온 사회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더욱 활짝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기 위한 교대간 사회주의 윤리를 자그마한 지장이라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전후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글발을 작업반 일지에 써넣고 하나는 전체를

사회주의 위업에 바치신 위대한 한생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진영의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홀모의 정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공고에서 김정일대헌수회고 민주공고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며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앙드레 로베르셀레 잘론다는 오는 12월 17일 세계 진보진영인들은 인류사주위업의 걸출한 명도사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그리움을 안고 그의 서거 3돐을 슬염히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김정일명도사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지만 사회주의의 선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오늘도 진보진영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께서 몸소 집필하신 고전적작품들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의 나라, 인류의 리상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유산으로 되며 그의 현명한 명도사업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주셨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는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국방위원회장께서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가장 큰

업적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신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해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이 세계에 다시금 밝혀지게 되었으며 진보진영인들은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위업에 바치신 철세위원의 중요한 업적은 또한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펼쳐놓으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은 김정일명도사에게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으며 진보진영인류의 심장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전 쏬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진보진영인류가 갈길몰라 헤매일 때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발표하시어 인류에게 광명의 길을 밝혀주시고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추를 내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 20주에 즈음하여 김정일대헌수 서거 3돐 스위스 회고위원회는 로작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기념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세계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추격해나가야 할 지침이며 라침판이다. 로작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물고고

를 풍부히 하고있다. 진보적 인민들은 역사적인 이 로작을 《우리 시대의 공산당선언》이라고 찬양하고있으며 김정일동지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세계사회의운동의 위대한 명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오늘날 사회주의의 조선은 김정일명도사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세계사회의의 불멸의 선군부대로 강화발전되고 있다.》

영국신문 《더 뉴 워커》는 김정일동지께서 집필하신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현 시기 날로 강화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에 철추를 안기는 진리의 확인이며 조선을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의 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갔다는것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확인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계승되고 승격될것임을 이룩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인류의 리상인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심신을 가지고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에서 승리의 앞날을 보다 보며 사회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

한 투쟁은 제국주의의탄압력과 가장 참예한대결이였으며 력사에 유례없는 매우 준엄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시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위업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시게 되었고 천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확인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계승되고 승격될것임을 이룩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인류의 리상인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심신을 가지고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에서 승리의 앞날을 보다 보며 사회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

한 투쟁은 제국주의의탄압력과 가장 참예한대결이였으며 력사에 유례없는 매우 준엄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준엄한 시련의 시기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시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위업진반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시게 되었고 천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확인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계승되고 승격될것임을 이룩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인류의 리상인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은 심신을 가지고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대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에서 승리의 앞날을 보다 보며 사회주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조국을 수호하기 위

심리모략의 흉악한 배후조종자

뭇군 개 뭇된것만 플라한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에서 종교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모략을 일삼는 악질보수단체인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추태가 그를 방불케 한다.

최근 《한기총》은 애기봉등담림추진위원회라는것을 만들고 철거된 담림을 다시 세우겠다고 기부를 끌어모으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철거된 애기봉등담림지에 임시시설물을 세우고 울해 크리스마스때 불을 켜겠다고 분주량을 피우고있다.

한편 피뢰국방부는 《한기총》의 애기봉등담림치를 정식 허가해주었다.

우리 천만국민의 심장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철석의 신념을 등담따위로 애찌보려는 피뢰들의 부질없는 망동에 조소를 금할수 없다. 그야말로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는 격이 아닐수 없다. 그랬잖아 제 발바닥이 아플뿐이다.

애기봉등담림철거 놀음을 악랄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일환으로서 가둬이나 침에 한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위협마저 몰아오는 엄중한 도발소동이다.

애기봉등담림이 과연 어떤것인가. 《한기총》페지리들이 애기봉등담림에 대해 그 무슨 《영화의 상징》, 《희망의 불빛》이라고 광고했지만 그런 파렴치한 기만선전을 누가 믿어줄것인가.

애기봉등담림은 명백히 불신과 대결의 불씨이다. 지난 시기 피뢰들이 애기봉등담림에 불을 켜는 놀음을 벌릴 때마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긴장이 격화되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북남대결의 상징, 반공화국심리모략시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불을 켜는것이 어떻게 《영화의 상징》, 《희망의 불빛》으로 될수 있는가.

종교를 악용하여 동족의 사상과 체제를 헐뜯고 북남대결을 조장하는 《한기총》의 범죄적망동은 눈여겨볼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것은 피뢰당국이 애기봉등담림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불을 켜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는 사실이다. 피뢰국방부가 애기봉등담림철거 허가해준것을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이 등담과 관련한 모든 움직임은 피뢰당국의 반

공화국대결정책의 산물이다.

그 모략극의 막후에는 피뢰당국이 있다. 남조선집권자가 애기봉등담림을 누가 지지해서 철거했느냐고 노발대발했다는것은 이미 폭로된바이다. 그후 피뢰들은 수백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애기봉에 심리전수단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애기봉등담림철거에 나선 《한기총》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피뢰당국의 꼭두각시일뿐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해있다. 반공화국베라살포로 북남대결위급접촉을 파란사건 피뢰대당은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요란히 울리고 반공화국《인권》모략활동을 활발적으로 벌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도발을 거듭오고있다. 이것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대한 정치군사적압력을 강화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흉악한 계획의 발로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피뢰당국의 무분별한 대결망동이 빚어낸 엄청난 후과에 대해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뢰당국자들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는 종교의 탈을 쓴 대결정치판이들까지 내몰아 북남대결을 수습할수 없는 국면에 몰아가고있다. 피뢰들이 애기봉등담림철거 놀음과 관련하여 그 무슨 《자유통일의 정신》을 떠벌인대서도 명백한바와 같이 그들의 끝수에는 오로지 동족대결, 체제통일야망만이 짝 붙여져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분별한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한 피뢰보수당국의 진면모이다.

사태는 북남관계과국의 장본인,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톺아보여 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반공화국심리모략에 팽분하는 대결광신자들이 초강경대응전의 정면비목을 면치 못할것인데 대하여 선언하였다.

피뢰들은 팽만적인 반공화국심리모략소동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는 자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은 정 철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집회

베닌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는 련대성 집회가 11월 25일 베닌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베닌사회주의당 지도부성원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알리 후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어중이떠중이들을 규합하여 유엔무대를 떠벌하면서 끝끝내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하려는 망동을 저질렀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것은 유엔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을 마치도 인권유엔지대인것처럼 날조, 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적대적목적에 있다.

유엔무대에 조작된 이 특대형도발극은 조리를 허위로 가리워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극이며 음모와 날조로 세상사람들을 기만해보려는 철면피한 광대놀음의 극치이다.

베닌사회주의당과 베닌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전면적 거부, 전면배격한다.

베닌사회주의당 부위원장 아

그마흔조 슈스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강도적인 《인권결의》는 조선의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로골적인 선전도구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이번 《인권》소동을 비롯한 적대적악행이 계속되는 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초강경대응전이 벌어지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채택되었다.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계속 확대

미사법당국 경찰의 살인범죄 또다시 목인, 항거기운 고조

피구순사대로 미국의 전역에서 인종차별반대시위가 계속 확대되고있는 속에 3일 뉴욕에서 사법당국이 흑인남성을 죽인 백인경찰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보도되었다. 열마진 뉴욕의 거리에서 백인경찰이 담배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흑인남성을 목졸라 살해하였다.

당시 백인경찰이 흑인남성을 에리크 가너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고있을 때 뒤에서 달려들어 그의 목을 팔로 감싸고 그를 시작하였다. 그판지친 식을 앓고있던 그가 《숨을 쉴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백인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끝끝내 그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진 상태였다고 한다. 이를 실종해주는 동영상자료도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살인사건 처리를 오래동안 끌고오던 끝에 살인사건 백인경찰에게 불기소처분이 없다느니 뉘니 하면

서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렸던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격노한 피해자의 가족과 흑인인권단체 성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뉴욕시대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숨을 쉴수 없다.》고 한 피뢰들의 애절한 호소를 그대로 웨치면서 살인범죄를

백인경찰 흑인남성 또 살해

미국의 아리조나주 서부지역에서 2일 백인경찰에 대한 흑인살해사건이 또 떠났다. 경찰당국은 백인경찰이 쓴 총에 맞아 흑인남성이 목숨을

《차별주의경찰은 필요없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4일 사법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거하는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다.

이날 뉴욕의 맨하탄에서 흑인남성을 죽인 백인경찰을 불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사법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한 시위대의 각계층 군중이 거리에 펼쳐나갔다. 그들은 《차별주의경찰은 필요없다》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거리들을 따라 시위 행진을 벌였다.

그들은 또한 주요도로와 다리를 봉쇄하고 시위현안에 나선 경찰들과 완강히 대응하였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3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으로 뺨은 도로에서 시위행진과

《제2의 퍼구순사대》 우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일 《흑인 사망에 한 걸음 떨어진 동양성을 보면 백인경찰이 담배를 판매하던 에리크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 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땅바닥에 쓰러뜨린것을 알수 있다.

동양성에서 에리크 가너가 《숨을 못 쉬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린다.

사법당국의 결정이 나오자 뉴욕시전역에서 시위가 터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에 적수공원의 18살 남 흑인청년에게 총격을 가한 백인경찰에 대해 미주리주사법당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던 1주일도 안되어 나왔다. 미주리주에서 백인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같은 군중의 시위와 항거가 계속되고 있다.

결정이 발표되자 피구순사대 이후 미국전역을 휩쓴 항의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민들이 사법당국의 결정에 격노한 시위대가 맨하탄을 관통하며 행진하자 뉴욕시당국은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피해자인 에리크 가너는 7월 17일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통성투쟁을 전개하였다.

보스톤과 시카고에서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수백명의 군중이 시위와 집회를 벌리면서 사법당국의 인종차별적인 처사에 강력히 항거하였다.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일 《흑인 사망에 한 걸음 떨어진 동양성을 보면 백인경찰이 담배를 판매하던 에리크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 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땅바닥에 쓰러뜨린것을 알수 있다.

동양성에서 에리크 가너가 《숨을 못 쉬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린다.

사법당국의 결정이 나오자 뉴욕시전역에서 시위가 터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에 적수공원의 18살 남 흑인청년에게 총격을 가한 백인경찰에 대해 미주리주사법당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던 1주일도 안되어 나왔다. 미주리주에서 백인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같은 군중의 시위와 항거가 계속되고 있다.

결정이 발표되자 피구순사대 이후 미국전역을 휩쓴 항의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시민들이 사법당국의 결정에 격노한 시위대가 맨하탄을 관통하며 행진하자 뉴욕시당국은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피해자인 에리크 가너는 7월 17일 스테이튼 아일랜드까지

은 정 철

파바레 바스케스 우루과이 대통령으로 선거

우루과이에서 파바레 바스케스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는 11월 30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지진

인도네시아의 중부지역에서 3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남위 2.8995°, 동경 122.4181° 되는 곳에 있었다 한다.

로씨야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위협이 도수를 넘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위장관은 《미국은 이미 나토의 문턱에 와있는 로씨야부력의 조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나토참모부총면이 에스 토니아에서 진행되었다.

총면은 나토의 어느 한 성원국이 그 어떤 《적대적인 대국》의 공격을 받든 경우 공동행동을 편마한다는 구실밑에 진행되었다.

미국과 나토의 책동에 맞서 로씨야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 국가방위관리센터 창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센터는 로씨야 전역에서뿐만아니라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감시하게 된다 한다.

부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성이 국가방위관리센터창설

작업을 주관하게 된다. 국가방위관리센터의 사명은 로씨야국방력인력의 근대화와 근대화 이르기까지 전체 군사조직들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모든 작전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지휘하에 국가지도부와 군사정부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데도 있다. 이것은 전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국가방위관리센터에는 국방생산과 전략핵무력통제센터, 전투통제센터 등을 포함하여 비상사태성과 평안진군산하 국경경비대 등 기관들이 망라되게 된다 한다. 이를 통하여 로씨야는 군사적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군수물자생산으로부터 공급에 이르기까지 군사장비제작과 수리 등 모든 단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려 하고있다. 또한 생산된 무기과 장비의 보관장소, 그 사용을 위한 병력선발, 훈련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국가방위관리센터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강

력한 컴퓨터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로씨야국경주변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들을 직접 감시할수 있다고 한다.

국가방위관리센터는 앞으로 자국의 전지구위적측정체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계들을 가동시키고 훈련과평정을 완전히 감시 통제하며 훈련목적에 따르는 여러 군부대들의 훈련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자기의 기능에 따라 평화시기는 물론 전시 환경에 맞는 작전방안을 직접 작성하며 그에 따라 국가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총참모부가 실제 진행행동을 진행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모든 관련기관들에 정보를 전달하고 제시된 전투임무수행을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나토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모스크바방 본사특파기자 박 춘 식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

무력간섭의 명분에 불과한 《인권옹호》

미국주도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이 광범적으로 벌어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말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전쟁을 되새겨보고있다. 그 전쟁이 다음이던 《인권과 소수민족 보호》의 간판밑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전 쏬련의 붕괴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족간 모순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물론 여기에 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내적요인도 있다. 보다 엄중해지는 외세의 분열리간섭이였다.

이제 날 한속이었던 슬로베니아, 흐르바츠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가 미국의 사육생이 되었다는 전포하고 유고슬라비아전쟁이 벌어져나갔다.

미국은 이 일로 분립주의자들의 《독립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 쓰르비아공화국이 속해있던 쏘보보르 알바니아인들은 《쏘보보르 해방군》을 조직하고 쓰르비아인들을 반대하는 각종 파괴행

동과 테로를 거침없이 감행하였다.

쓰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도수를 넘어 민족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라의 안전을 파괴하며 분열을 피하는 중동에서 유고슬라비아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갔다. 쏘보보르에 반방위력이 파견되고 알바니아분립주의자들의 《쏘보보르해방군》에 대한 진압작전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 쓰르비아인들이 알바니아인들을 대항적으로 학살한다고 떠벌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전개하였다. 뒤이 미국은 알바니아인들을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켰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유엔에서는 유고슬라비아에 무기한적인 무기금수조치와 경제제재를 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되었다.

1999년 3월 24일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도하의 나토연합군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남강도적인 군사적공격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유고슬라비아를 굴복시켜버리고 부차별적인 공습을 들이쳤다. 매일 3 700만 USS이상을 방진하며 9 095개의 군사 및 민간대상물에 2 300여개의 공중타격을 감행하였다. 비행기들의 출격회수는 2만 300회에 달하였다. 《전과》를 위해 총이폭탄, 고도정밀미사일, 대형투수 폭탄, 《F-15E》와 같은 신형 유도폭탄, 지어 열화우라늄탄과 독성대공을 전과하는 대량 살륙무기로 거머잡고 사용하였다. 공중폭격과 함께 10 000기 이상의 《토마호크》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은 실재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공격을 이었다. 동원된 공군기의 80%, 정밀유도무기의 100%가 미국의 것이였었다.

근 80일만에 걸쳐 감행된

군사적공습으로 유고슬라비아는 피의 판무장으로 변하였다. 약 2 00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6 00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100만명이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90% 지역의 전력공급망이 손상되고 교통시설은 만신창이 되었다. 300여개의 학교가 파괴되어 15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수 없게 되었으며 100여개의 문화기념물이 파괴 및 파손되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전쟁기간에 입은 경제적손실액은 20 000억USS에 달하였다.

총합된 우의 수자는 발칸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권말살이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해주고있다.

비단 유고슬라비아만이 아니라 미국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현란한 구호를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으며 오늘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광범한 여론이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흉악한 인권말살의 피수라고 단죄하는것은 당연하다.

지금 미국은 이미 거덜이 날 대로 난 상투적인 수법을 우리 조국땅에서 답습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저들의 추종세력을 내세워 유엔무대에서 우리의 의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날조하고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매도하는것은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국제적인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허나 그것은 망상이다. 이 땅은 결코 유고슬라비아와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권말살이었던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해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인권말살이었던것을 적라라하게 고발해주고있다.

미국은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현란한 구호를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고병원성 조류독감 급속히 전파, 사회적불안과 혼란 조성

최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새로운 H5N8형고병원성조류독감이 급속히 퍼지고있어 커다란 사회적불안과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11월 16일 네델란드의 우르데르시에 있는 한 닭목장에서 H5N8형고병원성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이 발견되어 15만마리도 도살하였다.

이 나라 해당 기관은 가금류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닭고기과 닭알판매를 중지하였으며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시켰다.

그러한 가운데 주이드홀랜드의 테르아르와 오베리즈홀주에 이 바이러스가 퍼져 5만 3 000마리의 닭을 죽이지 않았으며, 오베리즈홀주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목장은

로부르 반경 10km범위에 있는 34개의 가금목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영국의 요크셔주에 있는 오리목장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바이러스가 발견되어 발병지역으로 통행제한조치를 내리고 6 000마리의 오리들을 처분하였다고 한다. 네델란드와 영국에서 고병원성조류독감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주변나라들이 벌써 경고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단마크에서는 네델란드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닭알과 기타 가금류제품들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고있다. 마케도니아에서는 네델란드와 영국으로부터 모든 가금류와 닭알의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비루스가 전파될수 있는 가

능한 모든 경로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실시하고있다.

전문가들은 감염률이 매우 높은 철새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전염병이 세계 각지에 퍼질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최근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유럽에서 조류독감의 전파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는 때에 엄밀한 달천 격으로 유럽에서 새로운 고병원성조류독감이 발생하여 급속히 전파되고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